국외출장 결과보고

방통위 벨기에 · 프랑스 공무국외출장 결과

- 한 · EU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및 EU 적정성 평가 추진 등 -

◆ 기　　간 : 2017. 11. 19. (일) ~ 11. 23. (목),　3박 5일

◆ 방문국가 : 벨기에 · 프랑스

2017. 11.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목 차

Ⅰ. 출장 개요

Ⅱ. 세부 활동

1. 한·EU 개인정보보호 고위급 회담 및 공동성명 발표 ····· 2

2. 한·EU 개인정보보호 워크숍 개최 ····· 8

3.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CPP) 방문 및 위원장 회담 ····· 20

4. 무역협회 브뤼셀지부(KITA Brussels) 방문 및 면담 ····· 25

5. IMEC 현장 방문 ····· 27

6.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방문 및 위원장 회담 ····· 30

Ⅲ. 홍보 성과

1. 보도 자료 ····· 34

2. 언론보도 내역 ····· 41

Ⅰ.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o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추진을 위한 고위급(장관급) 회담 및 프랑스와의 개인정보보호 분야 협력 강화

2. 출장 국가 : 벨기에(브뤼셀), 프랑스(파리)

3. 출장 기간 : '17년 11월 19일(일) ~ 23일(목), 3박 5일

4. 출 장 자

구분	부 서	직 위(직 급)	성 명
1	방송통신위원회	위 원 장	이 효 성
2	기획조정관	국제협력팀장(서기관)	전 혜 선
3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서기관)	김 기 석
4	운영지원과	수행비서(행정사무관)	김 성 권
5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협력팀(행정사무관)	이 정 수
6	기획조정관	국제협력팀(행정주사보)	박 규 태

※ 개인정보보호본부 정현철 본부장, 개인정보협력팀 윤재석 팀장, 정수연 선임, 송현준 주임, 김지은 통역사 동행

5. 주요 활동

o 한·EU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양국 간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및 신속한 적정성 평가 진행 유도

o 한·EU 기업 대상 기업간담회 개최를 통해 양측의 개인정보 법제 및 규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대응 전략 수립 지원

6. 선물수령 관련

o 선물 수령 여부 : O

o 선물 신고 여부 : X (미화 100$ 이하의 단순 기념품)

Ⅱ. 세부 활동

1. 한 · EU 개인정보보호 고위급 회담 및 공동성명 발표

□ 일 시 : ’17.11.20(월) 11:00~11:45

□ 장 소 : EU 집행위원회 본부 12층 회의실

□ 면담자 :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EU 사법총국 담당 집행위원 등

□ 핵심 내용

o 한국과 EU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가 추진해 온 EU 적정성 평가(adequacy finding)의 성과를 2018년 내 조속히 달성할 것을 약속함

o EU는 한국이 ’17.6월 유럽평의회 개인정보보호협약(CoE 108호 협약)에 참관국(옵저버)로 가입한 것을 환영하며, 정회원으로 가입 여부를 질의

- 한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비교한 바, 두 체계가 상당한 유사성(a lot of convergence)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밝힘

o 한국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가 OECD 8원칙에 기반하여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며, 감독기구로서 방통위는 위원장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독립 기관임을 분명히 밝힘

□ 세부 면담내용

o (EU 집행위) 한국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화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반갑게 생각함. 그동안 적정성 평가 관련 실무협의가 충분히 심화되었다고 생각하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람. 향후 한국과 EU가 더욱 발전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길 희망함.

o (방통위) EU 집행위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달성한 것을 기쁘게 생각함. 개인정보 보호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토대로, 원활한 정보유통을 위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보호수준의 확보가 필수적임.

- 정보통신망법은 OECD 8원칙에 기반하여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충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율함. 또한 집행 기관으로서 방통위는 위원장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독립 기관이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음

o (EU 집행위) EU는 한국과의 보다 진전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한국과 EU 간 교역량 증대로, 자유로운 정보 유통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한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비교해 본 결과, 양측 모두 개인정보보호를 기본권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상당한 접점을 찾을 수 있었음.

- 약간의 상이한 지점들에 대해 연결(bridge)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개인정보와 비식별정보(anonymous data), 정부기관에 의한 정보접근 등 몇 가지 이슈가 남아있으나, 상호 합의된 기반이 있으므로 오늘의 대화가 좋은 첫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함.

- 더불어, EU는 한국의 유럽평의회 개인정보보호협약(CoE 108 협약) 참관국(observer) 가입을 매우 환영함.

o (방통위) 한국의 보호체계는 EU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생각함. 앞으로도 EU 집행위와 협의를 통해 한국의 체계가 EU의 적정성 조건을 충분히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EU 집행위) 2018년까지 적정성 평가 완료를 기대하며, 이제는 적정성 평가를 위한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그려나갈 때라고 생각함.

o (방통위) 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 증가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증대되고 있음. 다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또한 매우 중요해져 보호와 함께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18년 5월 적용될 GDPR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 (EU 집행위) EU는 한국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적·기술적·전문적 논의를 지속하고자 함. 한국에 EU 집행위의 대표 18명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GDPR 대응 관련 질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 관련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에도 매우 긍정적임.

□ 시사점

o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18년 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EU의 의지를 확인함

- 향후 양국 정상회담 등 고위급 접촉 및 대화에서 적정성 평가 의제 논의를 통한 조속한 성과 도출 필요

o 후속 행사로 이어진 한-EU 개인정보보호 워크숍에서 국내기업들이 GDPR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한 바,

- 우리 기업의 GDPR 준수 지원을 위해 EU와 개인정보호호 관련 정책적·기술적 논의 활성화 추진 필요

<붙임 1 - 한・EU 공동성명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 베라 요로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소비자 및 양성평등 총국 집행위원 언론 성명

오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베라 요로바 소비자 및 양성평등 총국 집행위원은 브뤼셀에서 만나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이슈에 대해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유럽집행위 사법·소비자 총국이 지난 수개월 간 유럽연합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크게 증진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치하했다.

양측은 기본적인 인권이자 데이터 경제의 소비자 신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상호간 데이터의 유통을 증진시키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양측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수준에서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표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로바 집행위원은 한국이 개인 데이터의 자동화 처리에 대한 유럽평의회 협약 108호(CoE 108호 협약)에 참관국으로 가입한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시했다.

양측은 디지털 경제에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적·실무적 단계의 대화를 지속하고 나아가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최근 이루어진 양측의 프라이버시 법제 제·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원칙, 개인의 권리 보장, 독립기구에 의한 감독에 기초하여 유럽연합과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간 유사성이 상당히 증대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변화는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정보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것이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2018년 내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11월 20일 브뤼셀

Press statement by Mrs. Věra Jourová, Commissioner for Justice, Consumers and Gender Equality, Mr. Lee Hyo-seong,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and Mr. Jeong Hyun-cheol, Vice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Today, Věra Jourová, Commissioner for Justice, Consumers and Gender Equality, Mr. Lee Hyo-seong,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nd **Mr. Jeong Hyun-cheol, Vice**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met in Brussels to exchange views on ways to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Korea on data protection and data flows issues.

In their discussions, they recognized the work carried out over the course of the last months by the KCC and KISA and the Directorate-General for Justice and Consumers of the European Commission, which has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 EU and Korean data protection 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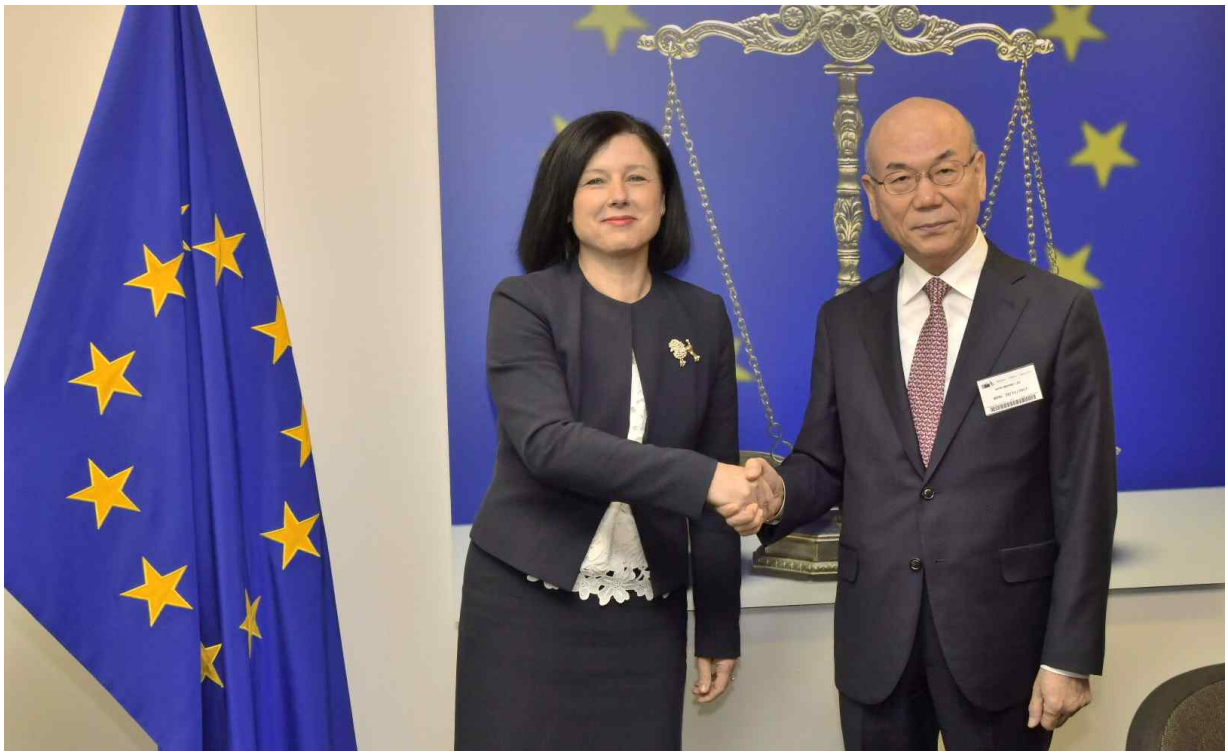
They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s a fundamental right and a central factor of consumer trust in the data economy, which also facilitates mutual data flows. They reaffirmed the need to ensure a high level of privacy and data security and expressed their readiness to enhance cooperation in promoting strong data protection standards, both bilaterally and at the multilateral level. In this respect, Commissioner Jourová welcomed the decision of Korea to join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onvention 108) as an observer, as a possible first step towards full participation as a Party to the Convention.

They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data in a digitalized economy and expressed their commitment to continue and further strengthen the dialogue, both at political and technical level.

Both sides acknowledged that recent reforms of their respective privacy legislation have further increased the convergence between the EU and Korean data protection systems, which rests notably on a core set of data protection principles, enforceable individual rights and oversight by independent authorities. This offers new opportunities to further facilitate data exchanges, including through an adequacy finding. They agreed to intensify the efforts towards swiftly achieving this common objective in 2018.

Brussels, 20 November 2017

<붙임 2 - 회담 사진자료>



< 기념 사진 >

< 회담 장면 >

2. 한 · EU 개인정보보호 워크숍 개최

□ 일 시 : ’17.11.20(월) 14:30~17:00

□ 장 소 : EU 지역위원회(Committee of Regions), 회의실 JDE 51

□ 참가자 : 이효성 위원장님 등 방통위 대표단, 김형진 대사 등 주 벨기에·EU 대사관 관계자, 정현철 본부장 등 KISA 대표단,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EU 사법총국 담당 집행위원, 브루노 젠카렐리(Bruno Gencarelli) 국제협력 과장 등 EU 집행위 관계자, 제29조 작업반 이즈미니 핵심 위원 등

o 한·EU 기업 관계자 총 80여 명

【개회식 주요 내용】

□ 한국 방송통신위원장 축사 (붙임3 참조)

□ EU 집행위 사법총국 담당 집행위원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o 한-EU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상호 입장을 확인하였고, 적정성 평가를 ’18년 안에 조속히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하기로 함. 한국이 유럽평의회 개인정보보호조약(CoE 108호)에 참관국으로 가입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함.

□ 김형진 주 벨기에·EU 대한민국 대사

o 한국과 EU는 54년 간 상당히 수준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으며, 정치, 경제, 보안 3개 분야에서 자유협정을 맺고 있음. 서로 매우 중요한 교역 파트너임

o 올해 EU의 對한국 투자는 21억, 한국의 對EU 투자는 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했음. 개인정보보호 협력이 상호 교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희망함

【주요 패널 발제 내용】

□ EU 사법총국 브루노 젠카렐리(Bruno Gencarelli) 국제협력과장

o GDPR은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새로운 개혁(reform)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특징으로 함

- 첫째, 기존의 비효율적인 규율을 하나로 통합하고 조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음. 단일 규제(one single rule)로, EU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하고자 함

- 둘째, 권리와 의무(right & obligation)를 재정비하였음. 정보주체의 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유출 통지 의무 등을 추가하여 의무를 강화함. 또한, 기존 지침과 달리 "위험 기반 접근"을 도입

- 셋째, 거버넌스 체계를 현대화하였음. 회원국 개인정보 감독기구(DPA) 간 협력과 EDPB를 강화하였으며, 벌칙 규정을 강화하였음

※ 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 EU 28개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구성된 기존 제29조 작업반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여 재편한 조직

□ 행정안전부 박종현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o 한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90% 이상 일맥상통한다고 파악됨

o 한국의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개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이뤄져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을 소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완전한 독립성을 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음

□ 제29조 작업반 이즈미니 리고폴루(Ismini Rigopoulou) 정책관

o 제29조 작업반은 2달에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등 작업문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 정보이전(international transfer) 관련 소분과 회의도 2달에 1회 개최

o 제29조 작업반은 GDPR 관련 가이드라인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18.2월 정례회의에서 동의, 투명성, 인증, 역외적용과 관련된 GDPR 가이드라인이 채택되고, 6주간 의견청취 절차가 있을 예정임. 한국의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표시를 기대함

<GDPR 관련 주요 기업 질의 내용>

질문	답변
GDPR의 적용범위(scope	- GDPR은 'EU 내'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이뤄지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EU 역외에서 이뤄지는 EU 국적자의 개인정보처리 활동이나 개인정보의 단순 저장 행위에는 GDPR 미적용 - 서비스 제공 언어가 유럽의 언어라는 사실만으로 GDPR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EU 시민을 타켓으로 하는지 여부는 언어, URL 주소, 광고범위, 사용 화폐 등을 종합 고려
GDPR의 적용기준	- GDPR은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양이 아니라 위험 발생 가능성 고려
GDPR 상 개인정보 정의	-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에 저장된 위치 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지 않지만, 특정 1인만 사용하는 기계에 입력된 위치 정보는 개인정보로 판단
공동법인의 경우 컨트롤러 결정 기준	- 컨트롤러 결정에는 기업의 지분이나 규모는 고려하지 않으며, 대신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주체가 컨트롤러가 됨
과징금 산정 기준	- 전세계 연매출의 4%를 계산할 때, 연매출이란 사업체 집단을 구성하는 전체 기업을 기준으로 함. - 다만 4%는 최대 금액이며, 위반의 성격 및 중대성, 기간, 영향력, 피해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모든 경우에 연매출의 4%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님

< 붙 임 1 - 세부 일정 >

한 · EU 개인정보보호 워크숍 프로그램

□ 프로그램 일정

시간	활동	발표자
14:30~15:00	환영인사	Vera Jourova EU 집행위원 이효성 방통위원장 김형진 주벨기에·EU 대사
15:00~15:30	GDPR의 목적과 의미, 역할과 기능	Bruno. Gencarelli(EC)
	GDPR 적용을 위한 제29조 작업반의 가이드	Isimini Rigopoulou (제29조 작업반, CNiL)
15:30~15:45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전반에 대한 소개	박종현 과장(행안부)
15:45~16:00	휴식	
16:00~18:00	- GDPR에 대한 국내기업 질문에 대한 EC측 답변 - 현장 질의 답변	EU 집행위 방통위·행안부

< 붙 임 2 – 참석 기업 명단 >

개인정보보호 워크숍 국내 참석자 명단

		회사명	성명	직위	직위(영문)	구분	국가
국내	1	㈜웨어밸리	손삼수	대표	President	IT/데이터베이스	
	2		류현철	부장	Manager		
	3	포스코	황성준	팀장	Team Manager	철강회사	
	4	네이버	이재림	부장	General Manager	포털	
	5	SK에너지	장옥희	과장	Manager	정유	
	6	포스코경영연구원	정제호	수석	senior principle business analyst	연구소	
	7	㈜대한항공	박현정	대리	Assistant Manager	항공업	
	8	이베이 코리아	윤수영	팀장	Team Manager	전자상거래	
	9	LG전자	홍의돈	책임	Professional	제조	
	10	김앤장	이지은	변호사	Solicitor	로펌	
	11		계선미	변호사	Solicitor	로펌	
EU	12	판토스	고광림	대리	Assistant Manager	물류	독일
	13		최준수	차장	Europe IT Deputy GM	물류	네덜란드
	14	서연이화 주식회사	박덕찬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제조업	슬로바키아
	15	LG CNS 유럽법인	변상섭	법인장	President	전자IT	네덜란드
	16		여동기	관리담당	CFO	전자IT	네덜란드
	17		손정현	부장	General Manager	전자IT	네덜란드
	18	㈜대한항공	박수형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항공업	파리
	19	LG전자 베네룩스 법인	주철인	책임	Professional	전자	네덜란드
	20	일진베어링	이정훈	재무팀장	Finance Manager	제조업	독일
	21		유은경	총무팀장	Assistant Manager	제조업	독일
	22	현대상선주식회사	김정빈	과장	Manager	물류	네덜란드
	23		이상철	법인장	Managing Director	물류	네덜란드
	24	카카오게임즈 네덜란드 현지 법인	권혁진	담당	Manager	게임	
	25	LG 이노텍	강화숙	과장	Senior Manager	제조	독일
	26	삼성전자	천상필	부장	Executive Director	전자IT	벨기에
	27	현대자동차	김상진	과장	Manager	제조	벨기에
기타	28	금융감독원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강한구	사무소장	Chief Representative	공공	독일
	29	한-EU 연구혁신센터 벨기에 지부	나상원	소장	Director – Genral	공공	벨기에
	30		권오천	실장	ETRI Representative	공공	벨기에
	31		송영현	대외협력	External relations/NCP officer	공공	벨기에
	32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심상비	본부장	Executive Director	협회	브뤼셀
	33		최경윤	차장	General Manager		
	34		이선영	과장	Project Manager		
	35		윤가영	대리	Project Manager		

< 붙 임 3 - 위원장님 축사 >

위원장님 축사 요약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안내

o 한국은 ITU에서 발표하는 IcT 발전지수에서 꾸준히 1위를 지켜온 세계적 IT 강국으로서 5G 등 신기술 발전에 앞장서고 있음

o 한국은 IT 인프라 발전에 발맞춰 '99년부터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보호 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강력한 집행을 통해 수준 높은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o EU의 GDPR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기업의 책임성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보호체계를 확립했다고 생각함

□ IcT 시장으로서의 한국 소개

o 한국은 IT 신기술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 단말기 및 온라인 서비스의 세계적 테스트 베드 역할을 맡아왔음

o 앞으로 각국 기업들이 한국 진출에 어려움이나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트렌드에 따라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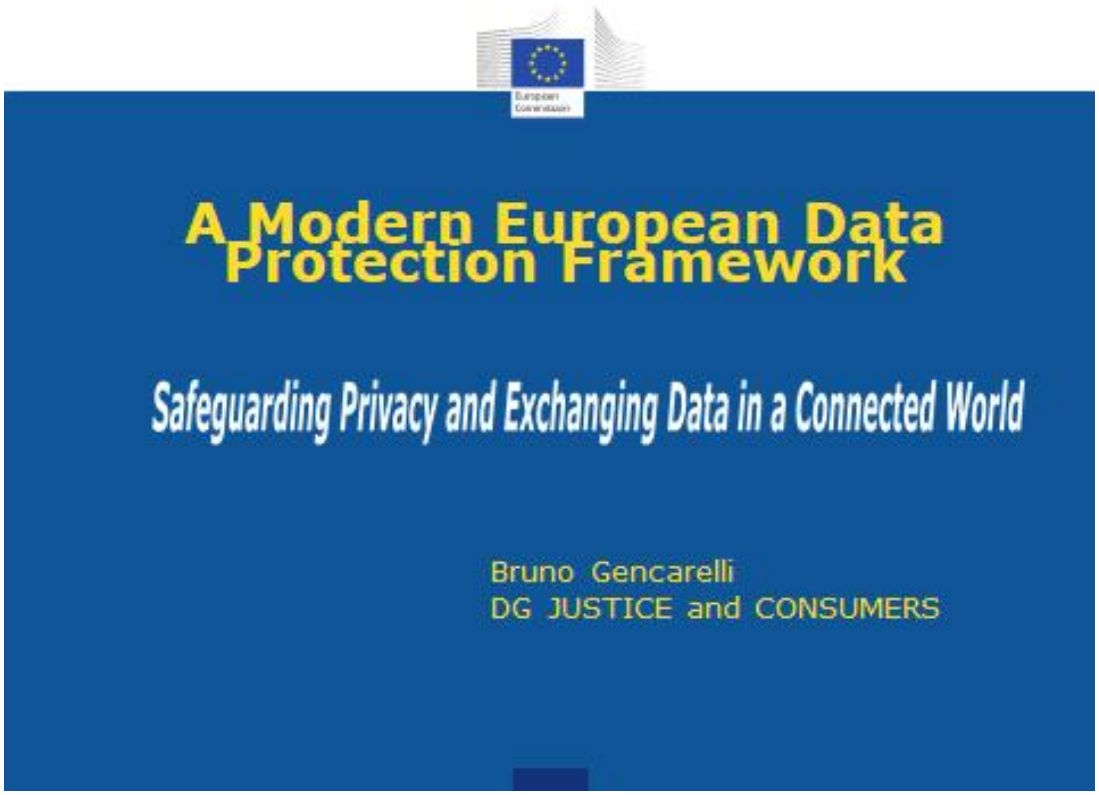
o 각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충분히 이해하여, 매력적인 한국 시장으로 한발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

□ 데이터 경제 대응 전략

o 데이터가 자원이자 경쟁력인 사회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에 대한 빗장풀기도, 보호 일변도의 규제도 바람직하지 않음

o 한국 정부는 자유로운 정보 유통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보호와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

<붙임 4 - EU 집행위 발표자료>



The EU Data Protection Reform Package: timeline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 Directive in the field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Police Directive)

Why a new European framework for Data Protection?

- **Technology developments and globalisation:** addressing the challenges and seizing the opportunities of the digital economy
- **Constitutionalis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 to data protection** (Lisbon Treaty)
- **Fragmentation of legislative framework** (different transposition of Directive 95/46/EC into national laws)

Main objectives and major changes

RULES FIT FOR THE DIGITAL SINGLE MARKET (a harmonised and simplified framework)

One single set of rules, "one-stop-shop" mechanism, cutting red tape ...

PUTTING INDIVIDUALS IN CONTROL OF THEIR DATA (an updated set of rights and obligations)

Enhancing transparency, clarifying the conditions for consent, notification of data breaches, right to data portability, right to be forgotten, risk-based approach...

A MODERN DATA PROTECTION GOVERNANCE

Stronger national DPAs, consistency mechanism for cross-border cases, establishment of a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to ensure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credible sanctions...

A harmonised and simplified framework

- **One single set of data protection rules for the EU** (Regulation)
- **One interlocutor and one interpretation** (one-stop-shop and consistency mechanism)
- **Creating a level playing field** (territorial scope)
- **Cutting red tape** (abolishment of most prior notification and authorisation requirement), including as regards international transfers

6

An updated set of rights and obligations

- **Evolution rather than revolution**: basic architecture and core principles are maintained (principles, legal bases, concept of personal data – clarified)
- **Putting individuals in better control of their data** (e.g. consent to be given by clear affirmative action, better information about data processing)....
- ...**including through the introduction of new rights** (e.g. right to portability) and **obligations** (e.g. data breach notification)
- Obligations graduated in function of the nature and potential risks of processing operations (**risk-based approach:** DPO, DPIA, data breach notification)
- Stronger rights, clearer obligations, **more trust**

7

A modern governance system

- **Better equipped DPAs and better cooperation amongst them** (e.g. joint investigations)
- **A new decision-making process for cross-border cases** (the consistency mechanism)
- The creation of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guidance and dispute settlement)
- **Credible and proportionate sanctions** (2/4% of global turnover in light of nature, duration, gravity etc. of the violation)

8

The transition period and beyond

- GDPR will apply from **25 May 2018**
- Preparing a **compliance-ready/friendly environment**: "We need to use this time well to get everybody, i.e. Member States, DPAs, citizens and companies to prepare for the new rules. The Commission will work closely with the Member States, data protection authorities and other stakeholders to ensure a **uniform application of the rules**. We will also" run **awareness-raising campaigns** so that citizens know their new rights (Commissioner V. Jourová)

The transition period and beyond

- **Aligning other legislative instruments** (e.g. 10 Jan. 2017 proposal for an ePrivacy Regulation)
- Central role of **DPAs** (Art. 29 WP/EDPB) – **guidelines** issued so far concern **data portability**, **DPOs**, ***'Lead Authority'***, **DPIAs** and **administrative fines**. Final adoption of guidelines after **consultation of stakeholders**. Ongoing consultation (until 28/11/2017) on draft guidelines **data breach notifications** and **profiling**. Art. 29 WP 2017 Action Plan identifies further areas for guidance (consent, transparency, certification).
- Close dialogue with **Member States** on national implementation
- Commission's **implementing and delegated acts** (e.g. requirements for certification schemes)
- **Market-driven instruments** (e.g. codes of conduct)
- Setting up of a **multistakeholder expert group**

International personal data transfers

ADRESSING THE CHALLENGES OF GLOBALISATION

- In today's globalised world, personal data is being transferred across an increasing number of borders and stored on servers in multiple countries
- Trade relies more and more on personal data flows
- These transfers have to be facilitated
- At the same time continuity of protection of individuals' rights must be ensured: the protection should travel with the data!
- Privacy and security of data have become a central factor of consumer trust
- Promoting high standards of data protection contributes to free, stable and competitive commercial flows

11

HOW IS THIS ADDRESSED IN THE EU DATA PROTECION REFORM AND THE 10 JAN. 2017 COMMUNICATION?

1. Clear rules defining **when EU law is applicable** (including to operators established outside of the EU)
2. A **renewed and diversified toolkit** for international transfers
   - Precise and detailed *criteria for adequacy decisions*, possibility of *partial or sector-specific* adequacy, new possibility to adopt *adequacy decisions in the law enforcement* sector
   - *Simplification* (abolishment of prior notification/authorisation) and *expanded possibilities of use* of other tools for transfers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BCRs)
   - Introduction of *new tools* (e.g. certification mechanisms, approved codes of conduct)
3.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data protection enforcement (Art. 50 of GDPR)
4. A **strategic action plan** for international transfers (Communication of 10 Jan. 2017), including at bilateral level renewed focus on adequacy (starting with Japan and Korea) and at multilateral level promotion of convergence (in particular in the framework of Convention 108 of the Council of Europe)

<붙임 5 - 워크숍 사진자료>

< 행사 장면 >

3.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CPP) 방문 및 위원장 회담

□ 일 시 : '17.11.21(화) 8:45~9:45

□ 장 소 :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CPP) 2층 사무실

□ 면담자 : 빌렘 드부케레르(Willem Debeuckelaere) 위원장 등

□ 주요 내용

o 한·벨기에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제29조 작업반 참여국 벨기에 CPP에게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요청

o CPP의 기업을 위한 GDPR 대응 지원 현황 공유 (13단계 대응 지원 브로셔 제작, 중소기업 GDPR 준수 컨설팅,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

o CPP 조직·권한 개편 계획 (現 16인 위원 中 2인 상임, 14인 비상임, 처분권한 미보유 → 5인 상임위원 체제, 처분권한 보유)

□ 세부 면담내용

o (CPP) 방통위의 방문을 환영하며, CPP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CPP는 '92년 법에 의해 설치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2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8.5월 GDPR 적용에 따라 구조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음. GDPR 설명 책자(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odex)와 벨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설명 책자를 선물로 드리고자 함.

o (방통위) 환대와 소중한 자료 제공에 감사드림. 한국에서 GDPR에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한국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 내 개인정보 보호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온 벨기에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한국은 현재 EU 집행위와 적정성 평가 협의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검토 중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은 OECD 8원칙에 기반하여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충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규율함. 또한, 방통위는 위원장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독립 기관이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서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음.

【GDPR 대응】

o (CPP) GDPR 적용에 대한 대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 첫 번째는 유럽 차원에서 제29조 작업반*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며, GDPR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음. 두 번째 벨기에 차원에서는 GDPR 적용으로 CPP에 새로 집행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직 구조 개혁이 예정되어 있음

* 제29조 작업반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에 근거하여 EU 28개 회원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으로, 법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적정성 평가 관련 심의 및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

- 또한, 기업들의 GDPR 준수를 위한 13단계를 담은 홍보 브로셔를 제작하여 배포 중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자료를 업로드하고 CPP에 직접 질문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제공 중임. 통신, 마케팅, S/W 등 업종별기업 간담회를 진행하여 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음.

o (방통위) GDPR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은 무엇인지?

- (CPP) 첫째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에 관한 질문임. DPO는 채용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임명과 채용 방법에 대한 관심이 많음. 둘째로는 GDPR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법, 셋째로는 GDPR 적용이 시작되는 '18.5월까지 관련 조치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곧바로 제재가 이뤄지는지 여부, 넷째로는 GDPR 적용 이전에 받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GDPR 적용 이후에도 유효한 지 여부 등이 있음

【CPP 조직 및 권한】

o (방통위) CPP의 위원 임명, 임기, 권한 등은 어떠한지 궁금함.

- (CPP) 현재 위원은 총 16명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상임으로 활동.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정부에서 추천해 벨기에 의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6년. '18.5월 GDPR 적용에 따른 조직개편 이후에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4~5년으로 정해질 예정임.

- CPP는 벨기에 연방 차원의 유일한 개인정보보호 기관임. 지방정부에는 북부, 남부,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3개의 기관이 있으나, 이들은 공공기관 간 정보교환에 관한 권한만을 보유함.

o (방통위) 한국은 금융정보, 의료정보 등 분야별로 개인정보 감독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데, 벨기에의 감독체계는 어떠한가?

- (CPP) 벨기에에선 공적·사적 분야를 모두 포괄하여 의료, 금융, 교육, 마케팅 등 전 분야를 CPP에서 감독함.

【EU 적정성 평가 등】

o (방통위) 한국은 EU와 적정성 평가를 추진 중임. CPP도 제29조 작업반의 일원인 만큼, 많은 지지를 부탁함.

- (CPP) 직접적 결정 권한은 CPP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EU 집행위의 결정에 따라 제29조 작업반 의견수렴 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한국의 적정성 평가가 절차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CPP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음.

□ 시사점

o CPP는 GDPR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으며 한국과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 향후 한-벨기에 간 활발한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국내기업 GDPR 준수를 위한 지원 필요

<붙임 - 회담 사진자료>

< 기념 사진 >

< 면담 장면 >

4. 무역협회 브뤼셀지부(KITA Brussels) 방문 및 면담

□ **일 시** : '17.11.21(화) 11:00~12:00

□ **장 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사무실

□ **면담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심상비 본부장,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 김상우 회장 등

□ **면담 내용**

o (KBA EU) 무역협회 브뤼셀 사무소는 1980년대 중반에 개설되어 초반에는 통상 마찰과 관련하여 EU 당국 대응을 지원해 왔음. 최근에는 EU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유럽 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KBA EU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방통위)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EU 집행위와 적정성 평가 협의를 추진 중임. '17.11.20일 EU 집행위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EU가 요구하는 조건에 한국이 상당히 근접했음.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달성하여 기업들이 개별적 비용 및 시간 지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KBA EU) GDPR 적용에 따라 유럽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음. 적정성 평가 추진과 같은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 (방통위) 향후 대통령님의 EU 방문 및 정상회담 추진 시 적정성 평가 관련 의제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o (방통위) 오늘 면담에 앞서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면담했는데, 기업들의 GDPR 준수 지원을 위해 13단계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있음. 우리 정부에서도 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니, KBA EU에서 기업들에게 전파해 주길 부탁드림.

- (KBA EU) 800여 개의 기업이 수신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통해 전파하겠음. KBA EU에서도 EU 지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자문 시스템 마련을 계획 중임.

- (KISA) KISA도 온라인 질의응답 창구 운영 중임

- (주벨기에·EU 대사관) 외교부를 통해서도 한국의 전체 기업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o (방통위) 한국의 산업 성장 및 발전에 관련 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KBA EU와 협회 소속 기업들이 함께 한국 산업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람. 방통위도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진흥을 위한 규제를 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음.

<붙임 - 면담 사진자료>

< 면담 장면 >

< 기념 사진 >

5. IMEC 현장 방문

□ 일 시 : '17. 11. 21.(화) 15:30~17:10

□ 장 소 : IMEC Tower(루벤)

□ 주요 내용

1 IMEC 일반 현황(발표자 : Luc Van Den Hove, President&CEO)

o (설립연도) 1984년

※ 1984년 루벤大 나노전자분야 연구실에서 독립하여 별개의 연구소 설립

o (미션) 나노 전자 및 디지털 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 유치 및 세계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

o (수입) '16년 기준 약 5억 유로

- 벨기에 지역정부 지원금 16%, EU 연구사업 등 기금 11%, ICT 기업 협력 수탁과제 73%

o **(규모)** 본사는 벨기에 루벤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대만, 중국, 인도, 미국, 일본 6개국에 7개 지사가 있음

- 약 80개국, 3,500여명의 연구원이 연구 중

o **(한국과 협력)**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많은 협력을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2003년, SK-하이닉스는 2007년부터 공동연구 추진 중

- 이외에도 동진, 풍산, Park Systems, LG 전자, 현대자동차 등과도 소재, 장비, ICT 응용기술 관련 협력 중

2 반도체 연구 현황(발표자 : Jan Roels, Staff Member)

o IMEC이 추구하는 반도체의 발전 방향은 소형화, 고성능, 저전력임

- '10년 45nm였던 반도체 사이즈를 '17년 10nm 사이즈까지 줄였으며 2-3nm까지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공동연구 중

[Neuromorphic chip(뉴로모픽 칩)]

o 차세대 기술 분야로 반도체 칩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칩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기술

- 최근 컴퓨터에 내장된 반도체 칩이 벨기에와 프랑스의 전통 곡을 분석한 후 스스로 새로운 곡을 창작해내는 단계까지 왔음

[Quantum Computer(양자 컴퓨터)]

o 또 다른 차세대 기술 분야로는 Qubits*(quantum bits)를 이용하는 Quantum Computer(양자 컴퓨터)가 있음

- 기존의 컴퓨터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전력 소비량은 적음

* Qubits : 물질의 최소 단위인 양자(quantum) 정보의 단위(unit). 일반 컴퓨터가 정보를 1과 0의 값을 갖는 비트 단위로 처리하고 저장하는 것과 달리 양자 컴퓨터는 1과 0의 상태를 동시에 갖는 큐비트(qubit) 단위를 씀

3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 연구 현황(발표자 : Thomas Kallstenius, Program Director)

o 암호화 관련 기술 개발 방향은 고성능, 저비용, 보안 3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임

- 기존에 사용하던 AES 알고리즘을 넘어선 Trivium을 개발하여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성능을 높일 수 있게 됨

o 블루투스를 통한 자동차 잠금 해제, Wi-Fi 해킹 방지 등을 연구 중

<붙임 - 방문 사진자료>

6.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방문 및 위원장 회담

□ 일 시 : '17.11.22(화) 15:30~16:30

□ 장 소 :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 (CNIL, Commission Nationale Informatique & Libertes) 회의실

□ 면담자 : 이자벨 팔크-피에로틴(Isabelle Falque-Pierrotin) 위원장 등

□ 주요 내용

o CNIL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상당함을 확인하고, 한국의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o CNIL은 제29조 작업반의 가이드라인 및 적정성 평가 기준 제작 등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바, GDPR 가이드라인 및 적정성 평가 기준 초안 발표('18년 초 예정) 시 한국의 적극적 의견 개진 요청

□ 세부 면담내용

o (CNIL) CNIL은 1987년 설립된 독립 기관으로, 정부나 의회 등 다른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않음.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최근 CNIL의 활동 영역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음.

- CNIL은 데이터 활용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데이터 보호를 추진하고자 하며,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 및 데이터 활용 촉진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음.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중임.

- 또한, 기업이 올바른 방법(proper way)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 보험, 자율주행자동차 등 분야별 행동지침(code of conduct)을 마련하고 있음. GDPR이 개인정보처리자(controller)의 책임성(reponsibility)을 강조하므로 행동지침 마련이 매우 중요함.

- 한편, 디지털 환경은 세계적인 환경이므로 CNIL은 국제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EU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상 BcR(Binding Corporate Rules)과 APEC의 CBPR 간 접점을 찾는 작업에도 CNIL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음. 제29조 작업반 일원으로서 APEC과 제29조 작업반 간의 협의에 적극 참여 중임.

o (방통위) 위원장님의 환대에 감사드리며, 상세한 설명과 자료 제공에 감사드림. 한국에서 GDPR에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한국은 유럽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 개인정보보호 논의에 활발히 참여해 온 CNIL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우선 방통위는 법에 근거한 독립기관으로, 업무에 있어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 글로벌 ·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산업적 활용이 매우 중요함. GDPR도 이러한 전제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EU와 한국이 중요한 교역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에 공동의 관심사를 갖는다고 생각함. 오늘의 논의를 통해 프랑스와 한국이 정보 유통 및 디지털 교역 등에 막힘이 없도록 좋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희망함

o (CNIL) 적정성 평가는 EU 집행위의 권한이며, CNIL 등 제29조 작업반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advice)하는 역할임. 기존에 적정성 평가 기준에 대한 제29조 작업반의 의견이 WP12(Working Paper 12)로 발표되어 있으나, GDPR에 맞게 새로운 버전을 개발 중임.

- 새로운 기준에서는 특히 '정부기관에 의한 정보접근'이 강화됨. GDPR에 새로 도입된 정보주체의 권리(예: 정보이동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지, 국외이전 관련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음. 제29조 작업반 정례회의에서 새로운 기준(referential)이 채택되면, 6주 간의 의견청취(public consultation) 기간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해주기를 바람.

o (방통위) 아직 DPO(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 (CNIL) GDPR에는 DPO 지정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EU 밖에 존재하는 기업이 모두 DPO를 지정해야 하는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음. 다만, 지정하는 경우에는 EU와 원활히 소통 가능하고 쉽게 접촉할 수 있어야 함.

o (방통위) 이자벨 팔크-피에로틴 위원장님이 차기 ICDPPC 회의의 의장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도 차기 회의부터 정회원으로 활동 계획 중인데, 이와 관련해 조언할 사항이 있는가?

- (CNIL) ICDPPC와 같은 국제회의체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향후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CNIL은 지난주 APPA 회의에 참석하여, 새로운 의제(initiative)를 논의하기 시작했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국제적 토론의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 한국도 다양한 형태의 국제 논의에 충분히 준비하고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o (방통위) 한국이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에 대한 CNIL 및 이자벨 팔크-피에로틴 위원장님의 적극적 지지를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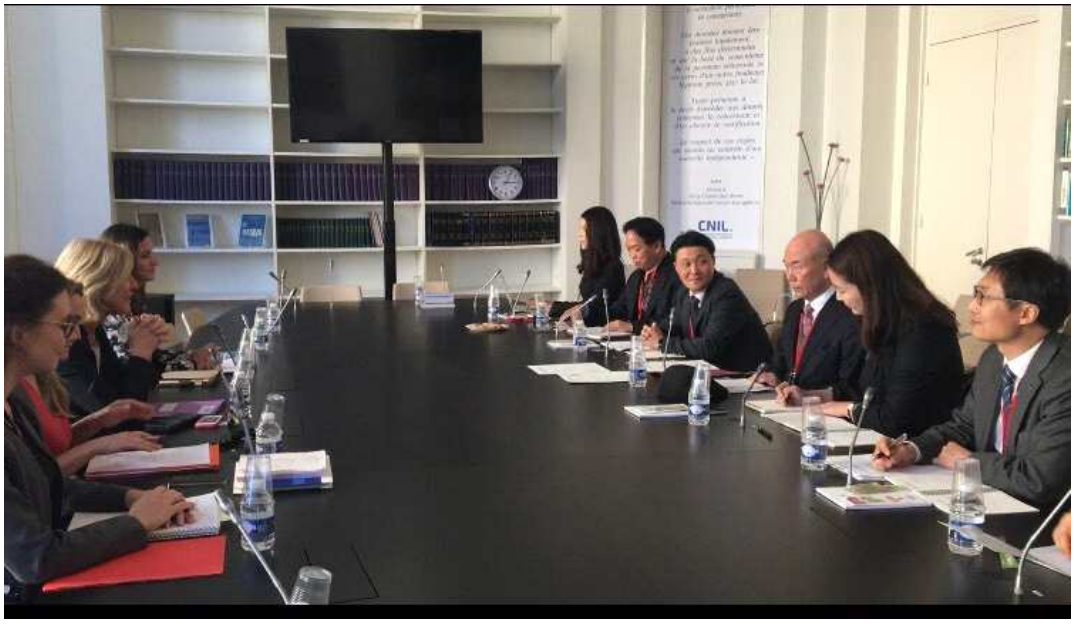
- (CNIL) CNIL이 한국의 편에서 적정성 평가를 지원(assist)할 것임.

□ 시사점

o CNIL은 적정성 평가의 핵심 관문인 제29조 작업반 논의를 주도 중이므로 조속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지속적 협력 강화 필요

o CNIL이 GDPR 가이드라인 제작, 적정성 평가 상세기준 마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CNIL과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의 GDPR 준수 대응 지원

<붙임 - 회담 사진자료>



< 면담 장면 >

< 기념 사진 >

Ⅲ. 홍보 성과

1. 보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7년 11월 2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2017. 11. 20.(월)

문의 :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협력팀 김기석 팀장(☎2110-1536)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협력팀 이정수 사무관(☎2110-1538)

방통위, EU 적정성 평가 추진 관련 한·EU 개인정보보호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 방통위원장, EU 사법총국 집행위원 등과 장관급 회담, 2018년 내 적정성 평가 성과 내기로 -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현철 본부장은 유럽연합 사법총국(European Commission DG - Justice, Consumer and Gender Equality) 담당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집행위원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만나 개인정보보호와 양측 간 정보유통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붙임1: 한·EU 공동 언론 성명서]**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정성 평가'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U는 1995년 제정된「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거하여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적정성 결정) 해당국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EU 시민의 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별도 국외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유럽 각국 규제당국의 심사를 받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나아가 EU는 급속한 IcT 기술의 진보와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나타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채택('16.4월)하여, 적용('18년 5월)을 앞두고 있다. GDPR은 기존 개인정보보호 지침(95/46/EC)과 달리 EU 전체 회원국을 직접 구속하여 EU 역내에서의 법적 효력이 더욱 통일적이고 강력해지며, 정보주체의 권리강화, 기업(컨트롤러)의 책임성 강화, 피해구제와 집행 강화(최대 과징금 전세계 연매출 4% 또는 2,000만 유로)를 특징으로 한다. **[붙임2: EU 개인정보보호 법규]**

이러한 EU의 규제 강화로 EU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EU와 '적정성 결정'을 추진해왔다. EU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국내 기업은 별도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붙임3: EU 적정성 결정]

이번 장관급 회담은 그간 수차례 이어온 한-EU 간 협의의 결과로, 양측은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자 원활한 정보 유통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유통 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간 유사성을 확인했으며, 한국의 적정성 평가라는 목표를 2018년 내에 조속히 달성

하기로 약속했다. 2018년 5월 GDPR 적용 이전까지 적정성 결정을 목표로 EU와 협의를 추진해온 정부의 계획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한·EU 개인정보보호 워크숍에는 한국과 유럽에서 80 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과 EU가 각각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해 발표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했고, 제조, 물류, IT 등 산업 각계에서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GDPR의 적용 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은 12월 11일(월) 열리는「우리기업 대응을 위한 GDPR 설명회」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7년 11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2017. 11. 21.(화)

문의 :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협력팀 김기석 팀장(☎2110-1536)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협력팀 이정수 사무관(☎2110-1538)

방통위,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CPP) 위원장과 만나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 한국의 EU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한 벨기에 측 지지 요청 -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현철 본부장은 21일 오전 9시(현지시각)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CPP)를 방문하여, 빌렘 드부케레르(Willem Debeuckelaere) 위원장을 만나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과 양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 자리를 빌려 한국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EU와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EU '적정성 평가' 추진의 일환으로, EU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당국과 협력 관계를 통해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의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적정성 평가란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U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는 EU 집행위의 최종 권한이나, EU 28개 회원국의 감독기구로 구성된 제29조 실무 작업반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도록 되어있다.

벨기에 CPP는 유럽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어, 이번 협력 대화가 향후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경 간 정보 유통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면담이 한-벨기에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빌렘 드부케레르 위원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한국과 EU가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7년 11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 2017. 11. 23.(목)

문의 :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협력팀 김기석 팀장(☎2110-1536)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협력팀 이정수 사무관(☎2110-1538)

방통위, EU 적정성 평가 추진 위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위원장과 협력 대화

- 제29조 작업반 지지 확보로 EU 적정성 평가 추진 청신호 -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현철 본부장은 22일 오후 3시(현지시각) EU 핵심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Informatics and Liberty, CNiL)를 방문하여, 이자벨 팔크 피에로틴(Isabelle FALQUE-PIERROTIN, 現 EU 제29조 작업반* 의장, 차기 ICDPPC* 의장)과 만나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GDPR 준비 현황 등에 대한 협력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한국이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 ※ **EU 제29조 작업반** :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에 따라, 28개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으로, EU 집행위가 적정성 평가 진행 시 작업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함
>
> ※ **ICDPPC(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 Privacy Commissioners)** : 총 78개국 119개 기관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국제회의로, 매년 1회 회의를 개최(2017년 제39차 총회, 홍콩)하며 세계 개인정보보호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개인정보보호의 올림픽'이라고 불림

이번 방문 목적은 EU 적정성 평가 추진의 일환으로, CNiL의 이자벨 팔크 피에로틴 위원장은 적정성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29조 실무 작업반의 의장으로서 한국의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U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인정해주는 제도인 적정성 평가는 EU 집행위의 최종 권한이나, 제29조 실무 작업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제29조 작업반 의장국인 프랑스의 CNiL 위원장을 만나 협력을 강화하고 지지의사를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협력 대화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만드는 토대"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벨 팔크-피에로틴 위원장은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한국과 EU 간 적정성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 언론보도 내역

날짜	언론사	헤드라인
'17 -11 -20	뉴시스	韓기업, EU시민 개인정보 활용 추진.... 방통위-EU, 공동성명
	이데일리	국내 기업 EU시민 개인정보 한국 이전 쉬워지나..방통위, EU'적정성 평가' 추진
	아이뉴스24	방통위, '한·EU 개인정보보호 협력' 공동성명 발표
	TV조선	국내 기업, EU 개인정보 활용 추진.... 방통위-EU 간 공동성명 발표
	EBN	'한·EU개인정보보호 협력 공동 성명' 어떤 내용 담겼나
	아시아경제	"한국 개인정보보호는 EU수준"...인증받고 유럽 진출문 넓힌다
	서울경제	EU국가 개인정보, 韓 기업서 활용 추진
	비즈니스워치	방통위, EU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회담 내년 GDPR 시행 앞두고 성과 내기로
	MK뉴스	EU 개인정보 국내기업 활용 '청신호'
	디지털타임스	방통위, 한·EU 개인정보보호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17 -11 -21	정책브리핑	방통위, EU 적정성 평가 추진 관련 한·EU 개인정보보호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뉴스1	방통위, 벨기에 개인정보위원회 만나 협력방안 논의
	연합뉴스	이효성 방통위원장, 벨기에에 EU개인정보보호 평가 협조요청
	뉴시스	방통위, 벨기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와 협력 강화
	머니투데이	방통위원장, 벨기에에 EU 적정성 평가지지 호소
	디지털데일리	방통위, "EU 적정성 평가, 벨기에지지 요청"
	데일리시큐	방통위,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정책방향 협력 강화
	JTBC	한국 기업들, EU 개인 정보 활용 가능해져
	아주경제	방통위,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17 -11 -22	보안뉴스	방통위, 한·EU 개인정보보호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 발표
'17 -11 -23	정책브리핑	방통위원장, EU 적정성 평가 추진 위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위원장과 협력 대화
		방통위, 프랑스와 EU 적정성 평가 협력
	뉴시스	방통위·CNIL, EU 적정성 평가 협력
	디지털타임스	방통위원장, EU 적정성 평가 추진 위해 프랑스 위원장과 협력 대화
	데일리시큐	이효성 방통위원장,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 방문
	디지털데일리	이효성 방통위원장, 프랑스 정보자유 국가위원회 위원장과 협력 대화
	아주경제	이효성 방통위원장,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 위원장 만나...
	아시아투데이	EU 적정성 평가 협력
'17 -11 -24	보안뉴스	이효성 방통위원장,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 위원장과 GDPR 협력논의